



아름다운 샘

NO. 193
2024년 1월호

‘아름다운 샘’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호(號)인 ‘가천(嘉泉)’의 순우리말입니다.

02 신년사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청룡의 기운으로 새혁명을”

03 이모저모

복지부 응급의료기관평가
전국 1위 쾌거

04 이모저모

몽골 어린이 초청
선천성 심장병 수술

05 유튜브 들여다보기

심장 판막 질환 Q&A
심장내과 하경은 교수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환자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청진기를 가슴에 품어왔던 그 마음으로,
가천대 길병원은 언제나
환자의 눈높이에서 동행하며,
최고의 의료서비스로
고객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천대 길병원 임직원 일동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
가천대학교 총장
의학박사 이길여



www.gilhospital.com 진료예약·문의 1577-2299

등록일 2008년 7월 29일 | 등록번호 남동 라 00014 | 발행인 이태훈 | 편집위원 가천대 길병원 홍보실
디자인 (주)케이커뮤니케이션즈

 **가천대 길병원**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청룡의 기운으로 AI혁명을 이끌자



사랑하는 가천 가족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만물을 내려다보며 호령하는 청룡의 기운(氣運)을 받아, 뜻을 높이 세우고, 큰 성취를 이루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문명사적인 전환인 인공지능(AI) 혁명과 대응 자세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의 등장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가천대 길병원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시스템인 IBM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도입했습니다. 진료시스템도 AI시대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앞서가자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AI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1년 365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누적적인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 결과는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2023년 말, 세계 최고의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챗GPT를 ‘올해 과학계를 만든 인물 TOP 10’의 머리에 올렸습니다. 비인간(non-human)의 존재를 선정한 것은 네이처 최초의 일이며, “챗GPT가 세상에 심오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찬양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대상이 이토록 추앙받게 된 것은 인류의 문명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재단 가족 여러분
네이처는 “AI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천길재단의 핵심역량인 교육, 연구, 의료, 문화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이, 종전의 관행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획기적인 변혁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저는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조직의 혁신(innovation)을 가속화해 가야 합니다. 당면한 ‘디지털 대전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 시스템으로 바꾸고,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 연구, 의료서비스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던 시스템조차도, AI 시대에 맞지 않으면 송두리째 바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느긋이 대처하면 거대한 조직도 한순간에 위기를 맞습니다. 세계적인 필름 메이커 코닥이나, 핸드폰 메이커 노키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새로운 시대, 변하는 수요를 정확히 읽어낸, 전자상거래의 아마존, 스마트폰의 애플, SNS의 페이스북,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구글은, 최강자가 되어 지구촌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자기계발(啓發)과 학습의 강화입니다. AI 시대에 지식 정보는 시시각각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실시간으로 지구촌에 전해지므로 함께 호흡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반면,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주고, 개별 역량을 키워주며 미래를 대비하도록 해 줍니다.

그러므로 AI 혁명은 개인에게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당장 우리는 챗GPT(인공지능)를 능수능란하게 프롬프트(prompt)하여, 정보와 지식의 바다에서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이론, 새로운 아이디어로, 호기심과 열정을 불태워 나만의 경쟁력을 무장해야 합니다.

가천길재단 가족 여러분!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영웅’으로 떠오르고, 우리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직도 개인도, AI의 무궁무진한 효율과 위력,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AI시대, AI환경, AI체제에 뛰어들어, 능동적인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혁신해 나가야 하고, 개인은 시대에 앞서고자 학습을 서둘러야 합니다.

갑진년 한해, 우리 모두, 미래를 향한 웅대한 포부로 용꿈을 꾸며, 호시우보(虎視牛步)로 나아갑시다. AI시대를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살피고, 황소처럼 묵묵히 혁신과 계발에 박차를 가해 정진하길 바랍니다.

새해, 재단 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가천길재단 회장
의학박사 이길여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기관 평가 중 1위



가천대 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40개 소 권역응급의료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영역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의 세부

항목을 평가해 이뤄진다.

가천대 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설, 장비, 인력의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평가 항목 중 안전관리의 적절성, 전원의 안전성, 중증응급환자진료의 적절성, 전담의료인력의 적절성, 응급시설 운용의 적절성, 환자 만족도 조사,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병상의 적절운용, 응급의료정보 신뢰도 항목에서 만점으로 대부분 항목에서 전국 1위를 획득했다.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가천대 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65일 24시간 응급의학전문가가 상주하며 신속한 치료 및 협진체계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 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도시지역 및 취약지 원격응급협진네트워크 ▲해양경찰 협력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중증 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닥터카 운영 ▲국가적 재난상황에 출동할 수 있는 긴급 재난지원팀(DMAT)구성 ▲인천 최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모두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대학병원이다. 이 외에도 인천광역시,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교육과 재난대비 훈련 등 보건복지 분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김우경 병원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고난도의 중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만큼 국내 최초 닥터헬기 도입, 닥터카 운영, 협진네트워크 구축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 전국 1위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최초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100례 달성 짧은 시술 시간 및 회복 빨라...기존 고난도 수술 대체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지역 최초로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시술 100례를 달성했다. 가천대 길병원 심혈관중재실은 지난 2017년 첫 시술을 시작한 뒤 매년 10여건 이상을 진행, 최근 100례를 달성했다. 심혈관중

재실은 심장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의가 모인 다학제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TAVI 시술은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과거 수술을 대신해 이뤄지는 치료법이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심장의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충분히 나가지 못하는 상태로 호흡 곤란, 흉통, 실신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과거 가슴을 열고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한 뒤 인공판막으로 대체하는 수술로 치료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간단한 TAVI 시술법이 시행되고 있다. TAVI 시술은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 기존 병든 판막 위에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시술이다.

심장내과 강웅철 교수는 “기존 개심 수술법은 고난도 수술로 고령자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사용됐지만, TAVI는 시술 시간이 짧고 통증이 적으며 입원 기간도 짧다”며 “그 동안 심혈관중재실 내 다학제팀 모두가 협심한 결과 TAVI 100례를 이뤘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몽골 어린이 4명 초청 치료 2023년 한해 11명 초청 치료 등 누적 443명에게 새생명 선물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달 28일, 몽골에서 온 심장병 어린이 게렐트(1), 세칭 빌렉(2), 아크위타(2), 에르덴(10개월) 등 4명의 치료를 기념하는 완치축하

연을 개최했다. 암센터 병동에서 열린 축하행사에는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주요 보직자들과 아이들을 치료한 소아심장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료진 등이 참석했다. 또 이번 초청 치료를 후원한 협력기관인 밀알심장재단 이정재 회장,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아이들은 지난 12월 4일 입국해 7~19일 순차적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이날 완치연 후 퇴원했다.

치료를 받은 아이들 중 3명은 심실중격결손 외에도 이종출구우심실, 팔로 네징후 등 복합적인 중증 심장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치료에 더욱 주의가 필요했다. 아크위타의 경우 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기도 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올해 몽골 어린이 11명을 초청해 치료하는 등 1992년부터 443명의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할 계획이다.



개방형중개·임상연구코디네이팅센터,
의료용 실시간 홀로그램 시스템 개발 (12/18)

(주)어반데이터랩에 기술이전



2023년도 협력병원 간담회 실시
환자의료 및 회송 등 협력병원들 참여 (12/8)

협력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밀병원 선정
2016년 서비스 개시 후 2023년 평가 A등급 획득

엄격한 심사 통해 2년간 제도 개선 위해 활약



원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위한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 및 시상식 (12/21)

부서별로 다양한 업무 소개, 영양팀 대상 수상



여교수회 회원들, 희망나누기 성금
치료 중인 환자 4명에 성금 전달 (12/28)

2008년부터 매년 연말 환자들에 치료비 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 바자회 열고
기부금 모아 해성보육원에 전달 (12/18)

10년 넘게 매주 보육원에서 의료봉사도 실시해 와



심장내과 한승환 교수
복지부 '인적 네트워크 사업 책임전문' 선정

급성심근경색 분야 인천 등 44명 전문의 참여



신경외과 유찬중 교수
복지부 '인적 네트워크 사업 책임전문' 선정

뇌졸중 분야 인천 부천 전문의 37명 참여



2023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원내 협력부서 실무협의체 개최 (12/20)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원내 협조 사항 논의



유튜브 [길병원TV] 핫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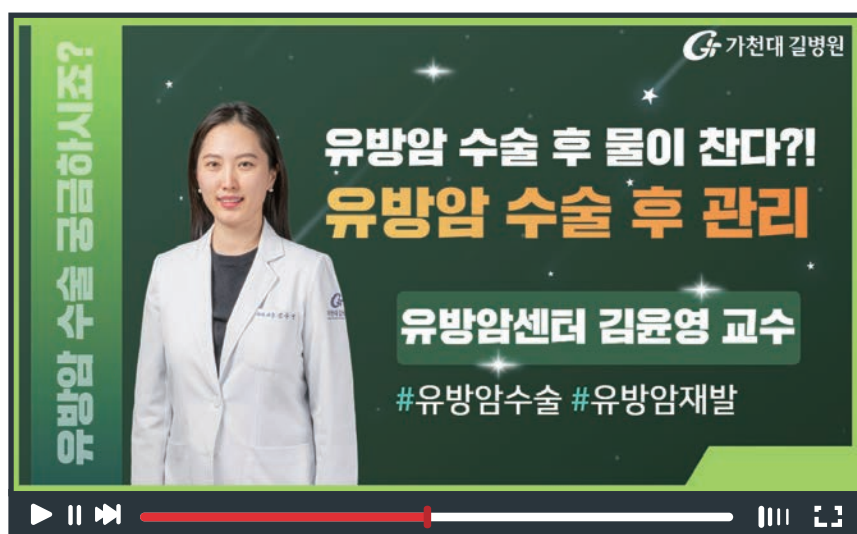


4개의 심장 판막,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은 심장 안에 혈액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판막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좁아져서 혈류가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판막 협착의 경우와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혈류가 역류하는 판막 역류가 있을 경우 심장판막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심장내과 하경은 교수는 판막질환의 증상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고,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심장판막질환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 심장내과 하경은 교수

- ▶ 진료분야 : 심부전, 고혈압, 판막질환
- ▶ 약력 : 대한심부전학회 정회원
대한심초음파학회 정회원



유방암 수술 후 물이 찬다?! 유방암 수술 후 관리

유방암 수술은 최근에는 로봇 수술기를 이용해 유방 전절제술 및 동시 복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하던 방식을 로봇 팔을 이용해서 하는 술식입니다. 로봇수술은 절개선이 보이지 않으며, 미용적인 측면에 이점이 있습니다. 유방암센터 김윤영 교수는 수술 후 수술 부위에 감염과 출혈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수술 부위에 물이 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액 해주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방암의 로봇수술과 수술 후 관리 방법에 대해 유방암센터 김윤영 교수가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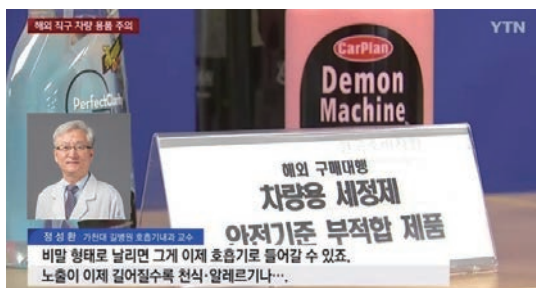
😊 유방암센터(외과) 김윤영 교수

- ▶ 진료분야 : 유방양성종양 및 유방암, 기타유방질환
- ▶ 약력 : 한국 유방암학회 임상연구기획팀 위원
한국 유방암학회 유방양성형술 연구회 위원



더 많은 의학정보를 알고 싶다면? YouTube 길병원TV 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들여다보기

미디어
핫클립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성환 교수

YTN <뉴스> (12/1)

해외 직구 차량용 세정제 주의



▶ 가정의학과 김경곤 교수

EBS <귀하신몸> (12/2)

중년의 다이어트



▶ 정신건강의학과 조서는 교수

EBS <귀하신몸> (12/2)

중년의 다이어트



▶ 감염내과 엄종식 교수

연합뉴스TV <뉴스>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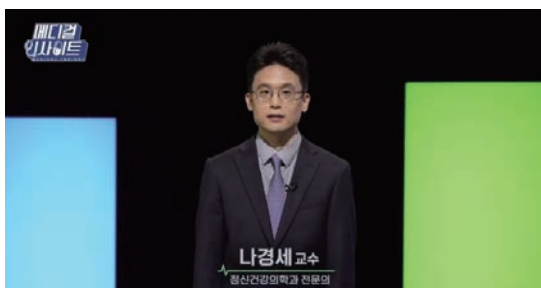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 소화기내과 신승각 교수

연합뉴스TV <뉴스>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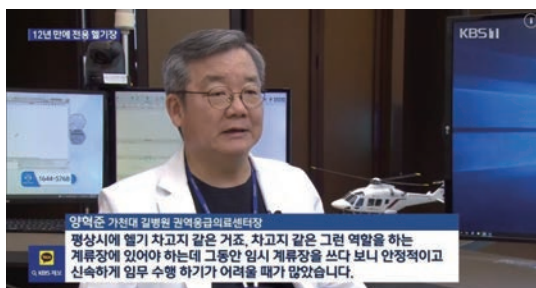
국산 의료기기 지원센터 개소



▶ 정신건강의학과 나경세 교수

YTN <메디컬 인사이트> (12/15)

난치성 우울증



▶ 응급의학과 양혁준 교수

KBS <뉴스> (12/16)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



▶ 외과 이준협 교수

KBS <생로병사의 비밀> (12/27)

1cm 이하 갑상선암 수술은?



▶ 병리과 강명희 교수

KBS <생로병사의 비밀> (12/27)

1cm 이하 갑상선암 수술은?



▶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

TBN <경인교통방송> (12/27)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

경향신문 <초가공식품의 진실> (12/28)

건강식품으로 오해하는 초가공식품



▶ 내분비대사내과 김병준 교수

중앙일보 <당뇨병 환자 겨울나기> (12/11)

국물 요리 피하고 운동해야



▶ 심장내과 문정근 교수

한국경제 <비후성 심근증> (12/4)

돌연사 원인되는 비후성 심근증



▶ 종양내과 안희경 교수

조선일보 기고 <괜찮지 않은 상황> (12/26)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야

가천대, 국내 최초 'AI인문대학' 설립 인문 + AI융합교육 본격화, 프로그래밍 언어 등 전공으로 배운다.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가 AI시대 인문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문학과 AI를 융합해 **인문학 교육에 새로운 혁신을 시도한다.**

가천대학교는 인문대 학생들의 AI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기존 인문대학을 AI인문대학으로 변경하고 학과 교육과정을 AI와 연계된 방식으로 대폭 개편, 'AI+인문 융합교육'을 본격화한다.

최근 크게 주목 받고 있는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 인문학과 정보기술의 융합)도 **AI인문대학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한다.** 바뀐 교육과정은 2024년 1학기부터 신입생과 2학년을 대상으로 곧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AI인문대학 전공 교육과정의 3분의 1이 AI 및 융합 교과로 전격 대체된다.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 90학점 중 60학점은 본인이 선택한 언어전공, 나머지 30학점은 AI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30학점 중 15학점은 AI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C++,파이선과 머신러닝, 딥러닝, AI언어학 등을 배우게 된다. 이를 위해 AI·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인문학에 특화된 AI 교과목을 신규 개발하고 AI인문대학 전공 교육에도 참여한다.

가천대가 그동안 적극 추진해 온 JA(Joint Appointment,



2개 이상의 전공 소속 교원) 방식을 인문학으로까지 확장 운영함으로써 학문 간 경계를 없애고 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AI인문대학 소속 교수들은 'AI시대의 한국어', '고전과 디지털인문학' 등 생성형 AI를 접목한 전공 교과를 신규 개발한다. 디지털인문학 전공 신입 교원도 추가로 채용한다. AI를 활용해 다양한 대화연습과 토론을 실습하고, 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한 언어 사용법을 학습하게 된다. AI로 소셜미디어를 분석하고 자동번역 프로젝트, AI기반 언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AI도구를 활용해 언어관련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가천대 이길여 총장은 "가천대는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수가 참여하는 '생성형 AI 교수법 연구' 소모임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생성형 AI 학습 공동체'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전공을 불문하고 AI교육 및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AI인문대학 설립을 통해 AI등 IT전문기술을 활용해 깊은 인문학 전공지식과 넓은 배경지식을 갖춘 **T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학생들 헌혈로 따뜻한 온정 헌혈증 1000매 가천대 길병원에 기부



가천대학교 총학생회(메디컬캠퍼스 way, 글로벌캠퍼스 one)와 메디컬캠퍼스 동아리연합회 '메아리'

가 지난달 11일 가천대 길병원에 헌혈증 1000매를 기부했다.

학생들은 2023년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글로벌캠퍼스와 메디컬캠퍼스 교내에서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 'A름다운 B움으로 O늘도 GACHON 하기'라는 행사로 진행된 헌혈캠페인에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매년 메디컬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주관으로 진행하던 캠페인을 올해는 총학생회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많은 학생들이 헌혈증 기부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감하고, 그 결과 1000매의 헌혈증이 모아졌다.

메디컬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2017년에도 198매, 2018년 224매, 2019년 164매, 2022년 276매 등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매년 헌혈증을 모아 가천대 길병원에 기부해 왔다. 학생들이 기부한 헌혈증은 사회사업팀을 통해 혈액질환 등 수혈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지원된다. 학생들을 대표해 유성현 총학생회장과 김아현 동아리연합회장은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헌혈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었다"고 말했다.

가천누리, 창립 9주년 기념식 개최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등 참여 지난 1년 성과 발표... 우수 직원 표창도

가천대 길병원이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주)가천누리가 창립 9주년을 맞아 지난달 7일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지난 9년간 가천누리가 수행한 업무 및 성과에 대한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우수 모범 직원에 대한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가천누리는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가천대학교 총장)의 뜻에 따라 2014년

12월 창립, 업무를 개시했다. 청년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현재 36명의 직원 중 관리 직원 2명을 제외한 34명의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90%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 가천누리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발생하는 수기기록



물을 스캔해 영상화 및 내원 환자 안내, 홍보물 관리, 진료의뢰서 수거 전달 등 병원과 연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객의 소리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건우 교수

2016년에 이미 폐장암으로 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폐암을 진단받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김건우 교수님께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시며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신뢰를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수술 결과도 좋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김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OO님



통증센터 최정주 교수

어머니가 최 교수님께 진료를 받고 계신지 5~6년 째 되었습니다. 늘 한결 같이 환자, 보호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어주시고, 환자가 걱정하는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며, 보호자의 건강까지도 챙겨주시는 최 교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약을 안먹어 될 만큼 좋아졌습니다. 간호사님들도 항상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OO님 보호자



소아청소년과 류일 교수

주변에 소아과가 많이 있지만, 저는 꼭!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독한 약이나 항생제를 바로 처방하지 않으시고 아이 상태에 맞게 지켜보면서, 과하지 않게 처방해주셔서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이 놓입니다. 대학병원이지만 차갑지 않고 따뜻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앞으로도 아이들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장OO님



척추센터 손성 교수

지난해 11월에 척추 협착과 디스크 파열 등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상태를 보고는 수술도 빠르게 해주셔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 같은 분입니다. 수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밤 늦은 시간까지 수술하시고, 보호자인 아들에게도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윤OO님



인공지능 12층 병동 오수경 간호사

오수경 간호사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워요. 갑자기 폐암에 뇌종양까지 진단 받게 된 남편 때문에 한 달을 눈물로 산 것 같은데 의학적 치료뿐만이 아닌 정신적 위로까지 해주신지 어느 정도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백의의 천사라는 말이 오 간호사에게 딱! 맞아요. 성격 급한 환자에게도 잘 맞춰줘 정말 감사했어요. 최OO님 보호자



내과중환자실2 김지혜 간호사

김 간호사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말하지 않아도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챙겨주는 따뜻한 보살핌에 감동 받았습니다. 환자들에게 잘 해주고 싶은 진심이 전해져서 이렇게 칭찬 글을 남깁니다. 앞으로도 저같은 환자들이 마음 편히 입원생활을 하다가 퇴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최OO님

고객의 칭찬

진료부 I 비뇨의학과 정경진 산부인과 김석영, 이승호 소아청소년과 류일 소화기내과 권광안 신경과 강유민(전공의), 한만경(전공의) 신경외과 박윤관, 손성, 황익준(전공의) 심장내과 이새봄(전공의) 안과 안정현(전공의) 외과 김두진, 박흥규, 정유승 외상외과 김정욱 이비인후과 김동영, 박우리, 최우혁(전공의), 한규철 정신건강의학과 조서는 정형외과 이범구 통증센터 최정주 통합내과 라한나 피부과 김희주, 박항준 혈액내과 김혁, 남건우(전공의) 호흡기내과 이상표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건우

간호본부 I A108W 김숙희, 박소연, 이정은 A128W 김민영, 이창민, 정상훈, 한솔 A158W 김경지 A168W 박지혜, 서한솔, 이채은, 임현정 A78W A78병동, 이상하 A88W A88병동, 김지연, 오혜선 C11AW C11A병동 C5BW C5B병동, 김보영, 사찬주, 정현주 C6AW 정채윤, 최지연 C7BW C7B병동, 이영주 C8AW C8A병동, 한지형 C8BW C8B병동, 김동욱, 박지민, 박채은 C9AW C9A병동, 김태영 C9BW 이아진 CT주사실 김민정, 김인숙, 이남경, 최인혜 I106W I106병동, 박창량, 이윤아, 이혁, 천진아 I116W 송민지 I126W 오수경 I136W I136병동, 양은진 I146W I146병동, 김소연, 박수지, 안진영 I156W 나상미, 소현아, 최정은 I166W 염은선, 이민경, 조가람 M6W M6충병동, 복주연, 한인성(이송팀) M7W M7충병동, 윤미진 MDR 분만실 MICU1 이정은, 전아령 MICU2 고가리, 이지영, 전채원, 김지혜 NICU 신생아집중치료실 NSICU 최예빈 R10W 최은진, 허주희 R7W R7충병동, 신유라, 오수현 SICU 김군자 TICU 심은영 마취과 김정훈(이송팀), 이혜지, 최경진 비뇨의학과외래 강수연, 박수욱, 최상기 소아청소년과외래 소아청소년과외래, 장혜지 소화기내과외래 문연화 소화기내시경실 김자영, 소화기내시경실 신경과외래 김지혜 심혈관내과외래 박항숙, 심혈관내과외래, 장임재(NA), 황지선 영상의학팀 진유호 이비인후과외래 박주현, 김은지, 문상희, 신현숙, 유예빈 정신건강의학과외래 주은미 종양내과외래 김지영, 김혜영 주사실 최인혜 척추센터외래 박준미 통원치료센터 이신혜, 통원치료센터 통증센터외래 통증센터외래 피부과외래 피부과외래, 강소희

진료지원부 I VIP 검진센터 고정혜, 정금희 물리치료실 심성보 치과외래 이지영

행정부 I 보안팀(안내데스크) 오화정 외래원무팀 변부경 원무팀 박소영, 우경선 재난방재팀 김명란

